



■ '애드립의 황제' 배우 박철민

### “대박난 애드립 계산·노력의 산물”

#### 삼성그룹 토크콘서트 '열정樂(락)서' 전남대서 생생토크

“사이의 성공 비법은 일관된 자신만의 스타일로 승부했기 때문이다.”(삼성 디스플레이 정석빈 사원)  
 “애드립은 철저한 계산과 피나는 노력에서 나온다.”(배우 박철민)  
 지난 25일 오후 6시 전남대 대강당 1200여명의 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그룹의 토크 콘서트 ‘열정樂(락)서’ 시즌3 다섯번째 강연이 열렸다.  
 첫 강연은 삼성그룹 사내 공모에서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삼성 디스플레이 정석빈 사원. 그는 “골라~ 골라~”를 외치며, 가정형편 탓에 동대문시장에서 1년간 노

점사를 했던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진 상태에서 군 제대 후 복학할 여유가 없어 동대문시장 노점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를 파는 일을 하게 됐다. 어수룩한 예비역 청년에서 어느새 노점에서 의자 위로 올라가 “골라~ 골라~”를 외치며 자신을 시키려는 상인들에게 예교를 부리고, 자릿세를 요구하며 폭행하는 건달들을 상대로는 자릿세마저 깎아버리는 천상 ‘장사꾼’이 돼 있었다.  
 정 씨는 “난관들을 하나 둘 넘기다 보니 ‘나한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물건이든 던져봐라. 다 팔아줄

■ 노점상서 삼성 엔지니어로 정석빈 사원

### “사이의 성공비법 자신만의 스타일”

테니’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67곳의 회사에 지원한 끝에 유일하게 서류전형을 통과한 삼성디스플레이 면접에서도 “골라잡아 오천원”을 외치며 자신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점 3.06에 토익은 없었다. 이런 스펙이지만 나만의 스타일로 소신껏 살면 이 자리까지 왔다. 본인만의 스타일을 가지면 뭐든 될 수 있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뒤이어 강연에 나선 최인아 제일기획 부사장은 여성 채용 자체가 드물던 29년 전 제일기획에 입사해 최

초의 여성 공채 부사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최 부사장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개성 있고 독창적인 사람’이라며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광주 출신 배우 박철민 씨는 자신의 연기인생을 바탕으로 열정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애드립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는 “그간의 유행어가 철저한 계산과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밝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어린 시절 낙상 사고 후 암



## 취득세 감면 확정

9월24일 이후 주택 취득 가구 소급 적용

정부가 9·10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돼 추석 이후 주택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수요자로서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투자 수요까지 따라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도세 감면안과 함께 9월24일 이후 세급 감면이 이던 추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

은 “실거주 수요가 투자 수요를 압도하는 상황이라 취득세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악성 매물도 소화돼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안과는 달리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폭을 낮추기로 했지만 해당 주택이 많지 않아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699만9027가구 중 9억원 이하가 98% (683만1130가구)에 이르며 9억~12억원대 아파트(8만6067가구)와 12억원 초과 아파트(7만3705가구)는 각각 1%에 불과하다.  
 다만 12억원 초과 아파트의 절대다수인 7만7227가구(96%)가 서울에 몰려 있어 침체의 골이 깊은 수도권 부동산의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침체와 경기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연합뉴스

## 세척력 비슷한데 가격은 5배

소비자원 드럼세탁기용 세제 16종 비교

세제 가격이 비싸다고 세척력까지 우수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드럼세탁기용 세제 16종(액체세제 10종·분말세제 6종)의 가격과 세척력, 색상변화, 이염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액체세제 제품군은 제일 저렴한 제품이 성능면에서도 우수했다고 밝혔다.  
 액체세제 10개 제품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한 ‘닥터 패브리’은 세척력(세탁 후 오염 제거율)이 평균27.2%로 가장 비싼 제품인 ‘퍼실 파워젤’(27.6%)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제품의 가격을 3ℓ 용량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닥터 패브리’이 9900원, ‘퍼실 파워젤’이 1만9108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한 번 세탁기를 돌릴 때 사용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퍼실 파워젤’(세탁량 3kg·1회 사용량 40ml)이 255원으로 ‘닥터 패브리’(19ml·63원)보다 4배 가량 비쌌다.  
 액체세제 중 강력한 세척력을 기록한 제품은 ‘진한젤 리큐’(평균 46.

6%)였으며, 이 제품은 이염(특정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현상) 정도를 따지는 항목도 평균 12점으로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분말세제는 비싼 제품이 세척력이 좋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가격이 가장 비싼 ‘퍼실 파워’의 경우 ‘좋은상품 드럼세탁세제’보다 세척력이 1.3배 우수했으나 가격은 약 4.6배 더 비쌌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좋은상품 드럼 세탁세제’도 1회 사용량(20g)에 해당하는 가격은 55원, 세척력은 39.4%로 다른 제품들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액체세제와 분말세제를 비교할 경우 분말세제의 세척력이 더 우수했지만 색상변화 이염을 방지하는 성능은 액체세제가 더 우수했다. 가격도 액체세제가 더 싸다.  
 자세한 정보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



나왔다 ‘갤럭시 노트 2’ 삼성전자 정보기술 및 모바일(IM)담당 신중균 사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삼성전자의 세 번째 노트 ‘갤럭시노트2’를 선보이고 있다. ‘갤럭시 노트2’는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판매된다. 통신 3사 모두 출시하며, 롱텀에볼루션(LTE)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 추석 차례상 전통시장 18만4161원·대형마트 26만1581원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차례상 비용은 20일 기준으로 전통시장 18만4161원, 대형 마트 26만

1581원이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의 차례상 비용(전통시장 18만4127원, 대형 마트 26만4053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과일 가격은 이날 중순까지 강세였으나 최근 오름세가 둔화했다. 수산물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고가 가격은 소비촉진 행사 등의 영향으로 강세지만,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공급과잉 탓에 하락했다. /연합뉴스

## 휴대전화 작년 101만대 분실

회수율 76%→59%

휴대전화 분실이 증가해 작년에 100만건을 넘어섰으나 주인이 없어 버린 휴대전화를 되찾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병현(민주통합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이동통신사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101만대의 휴대전화가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작년에 접수한 262만5천건의 분실 신고 가운데 해체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순 분실’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2010년 91만6천건에서 약 10% 증가한 수치다.  
 휴대전화기 분실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주인이 분실 휴대전화를 찾아 가는 사례는 감소하는 추세다. /연합뉴스

## 단말기 보조금에 2조원 ‘핑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작년 소비한 단말기 보조금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통 3사는 1조 9683억원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했다.  
 SK텔레콤은 작년 총 3조439억원의 마케팅비를 지출하고 이 가운데 9853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마케팅비의 3분의 1을 보조금에 투입한 것이다.  
 KT는 작년 마케팅비 2조640억원 중 보조금에 6253억원을, LG유플러스는 마케팅비 1조2954억원 중 보조금에 3577억원을 각각 지출했다. /연합뉴스



예금을 지키다

## 부실금융회사와 거래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못 받으신  
예금보험공사는 ✓ 파산배당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정이자를 못 받으신 분도 파산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http://m.kdic.or.kr>)의 미수령배당금 조회 참조
- ▶ 안내전화 02-758-1004



[파산배당금]이란 파산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